

인생망대 (사도행전 1:6-8)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인생 망대이다. 세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6절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다. 속국은 전쟁, 멸망, 포로를 다 합친 말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경제문제, 건강, 가정, 자녀 문제로 무너져있다는 분 있는가? 여러분 중에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 있는가? 너무 힘들어서 언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 질문하는 분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는 그 답을 말씀하고 있다. 나의 힘으로 살 필요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살리는 망대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가지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나는 제일 힘들게 목회였다. 제일 힘들게 설교하는거였다. 제일 힘들게 기도하는 것이었다. 제일 힘들게 전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복음을 알고 나니 제일 쉬워지는 것이 목회였다. 최고 쉬운 것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든 말든 나는 좋다. 기도가 좋고 전도가 좋게 바뀌었다. 딱 세가지 붙잡았다.

그 첫째는 오직의 망대이다. 오직 그리스도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문제 끝났다. 안 믿어도 사실 끝난 것이다. 그런데 믿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적용되는 것이다. 뭐해서 끝났는가? 창세기 3장 원죄,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물질이라는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사단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역에 해방된 것이다. 왜 오직의 망대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다른 것은 없다. 우리 아이들이 노래부르는데, 다른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있으면 말해보라. 창세기 3장 재앙에서 건질 다른 이름이 있는가? 이것이 통해야 한다. 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존경한다. 방금도 장로님이 나가면서 메모지를 주셨는데, 렘넌트가 통역을 잘하는데, 경상도 사람이라서 잘 못 알아들을까봐 쉬운단어로 천천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 한 30분 지나가면 말이 굉장히 빨라진다. 왜냐면 끝내야 하니까.

한번은 교회 들어가는데 할머니 두분이 계셨다. 그런데 설교 하면서 판서를 하는데, 1번은 괜찮다. 2번쯤 가면 말이 빨라진다. 말이 빨라지면 본색이 드러난다. 말이 빨라지면서 사투리가 원색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상도 말을 빨리 하면 일본말 같다. 이기 니끼야 내끼가 니끼가?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예배당 중간쯤 앉았다가 나를 보고 왜 말을 빨리하냐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겠다. 사투리를 왜 이렇게 만이쓰냐? 나오는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설교 중간쯤에 자기를 쳐다보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머리를 만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천천히 하라는 표시라는 것이다. 그렇게 사인을 정했다. 그런데 중간에 설교를 하다 보니 아내라 머리를 만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머리를 막 긁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했다. 그 다음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머리를 만지는 것이었다. 결국 계속 머리만 만지는 것이었다. 이것이 통해야 한다. 안 통하면 안된다.

저쪽에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 여행을 하다가 충청도를 갔다. 충청도를 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에 가서 앉았다. 충청도 이발사가 왔시유? 이건 왔냐는 것인데, 미국 사람은 뭘 보냐는 뜻이다. 그래서 미러, 충청도 말로는 거울이 아니라 밀라는 뜻인줄 알고 머리를 밀어버린 것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기 원하시는 것 같나? 우리가 잘해야 한

다. 우리가 훌륭해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 오직 그리스도가 뭔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것이다. 오직의 망대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40일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는 끝났기 때문에 끝내야 한다.

종이를 준비했다. 그런데 종이와 1달러가 있는데, 똑같은 종이인데, 그냥 종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1달러 종이에 침이 묻어 있으면 돈이 더럽다. 그런데 끝나고 종이를 가지고 가서 뭘 살려고 해도 안준다. 깨끗해도. 그런데 돈은 가지고 가서 뭘 사려면 준다. 더러워도. 돈은 구겨도 그것으로 뭘 사는 것이지 깨끗하다고 종이를 뭘 사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발로 밟아도 그래도 돈은 쓸수 있다. 찢겨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버림받고 찢어지고 더럽다. 훨씬 불신자가 나보다 깨끗하고 정직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더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나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가치는 신분인 것이다. 미 연방정부에서 이것 가지고 가면 주겠다고 법을 정한 것이다. 종이는 아무리 깨끗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장한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끝을 내야 한다. 오직 성령이 무엇인가? 끝을 보라는 것이다.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끝났고, 끝내고, 끝을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의 망대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것이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한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가 자녀 손자에게 내려간다. 한국에서 유명한 소매치기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안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 그만하고 결혼을 했다. 애를 하나 낳았다. 그런데 그 애가 주먹을 쥐고 안 놓는 것이었다. 의사가 모여서 왜 그러냐 하고 논의하다가 일주일 지나도 그대로면 손을 펴주자고 했다. 일주일 지난후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다. 손가락을 펴보니,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반지를 빼서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자녀가 누구의 잘못인가? 나는 교회에서 매주 이야기 한다. 집에서 자식 건드리지 말라. 남편 건드리지 마라. 아내 건드리지 마라. 절대 건들면 안된다. 가만 놔둬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남편, 자녀, 아이 속에 그리스도 계신다. 교인들 건들면 안된다. 교회 온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한다. 그래서 인생 망대가 뭐냐면 오직의 망대이다.

두 번째 인생망대는 오직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이 온다. 유일성 망대이다. 유일성의 망대가 뭐냐면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을 개인화 하는 것이다. 유일성 망대는 개인화, 현장화, 현장화이다. 우리가 오직의 망대를 가지고 유일성의 망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성령충만은 개인화 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개인화 안 되겠는가? 우리 자신이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장목사님을 존경한다. 한국에서부터 장목사님을 알았다.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에 행복해 한다. 이번에 동문들 교회들을 쪽 한번 도셨다. 다들 행복해했다. 너무 감사했다. 참 목사님 복음을 회복하셨구나. 나는 확신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다. 나는 정말로 단 한명하고도 갈등 없다. 뭐 때문에 갈등하는가? 내가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우리 교회 놓고 하

루 다섯 번씩 기도한다.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먹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이렇게 다섯 번. 개인적으로 미션 준 분들은 6번씩. 류광수 목사님 6번.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니 교인들이 사랑스러웠다. 옛날에 어른들이 왜 기도밖에 없다는 말을 이해할수 없었다. 사람들이 교회 안오면 왜 안오지 하고 미워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얼마나 힘이 들면 못 오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줘야겠구나 했다. 장로님들, 중직자들 생각해보라. 우리를 놓고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겠는가? 목사님이다. 당신들보다 내가 더 당신들기도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소통된다. 개인화가 뭐가? 끝났다는 것이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라는 말인가? 개인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한번만 해보라. 너무 바쁘면 조금만 해보라. 그러면 나 자신이 달라진다. 진짜로 하면. 그러면 우리 개인화가 되면 현상이 달라진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이 보인다. 두 번째, 가정이 보인다. 남편, 아내, 자녀가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기능, 업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화라고 한다. 유일성의 망대가 뭐가? 오직을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 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요즘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본다. 그래서 문화가 점점 바뀌는데, 아내랑 같이 장례식장에 갔다. 나는 시간이 많으면 교인들 장례를 다 치러준다. 한국에서는 관에 넣기 전에 깨끗하게 몸을 닦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힌다. 가만히 보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래서 느낀 것이 있다. 왜 자꾸 유교, 불교 따라 가지? 솔직히 말하면 수의가 비싸다. 그런데 그것을 입혀서 화장을 한다. 태울거를 왜 비싼 것을 입히나? 그것도 기독교식도 아니다. 유교, 불교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돌아가시면 열할 때 수의 입히지 마라. 평소 입던 한복 입어라. 양복 입어라. 그래서 장로님 부친 돌아가실때에는 양복 입혀서 보냈다. 멋있었다. 그 수의 값을 오히려 현금하면 된다. 관도 물어보니 굉장히 비쌌다. 뭘 그리 비싼 것을 하나? 불태울건데. 요새는 종이도 잘 나온다. 종이 박스. 종이 박스가 나무같다. 거기다 짚어 넣으면 된다. 태울건데. 그걸 현금하면 된다. 서운한가? 뭐가 서운한가? 그러면 안 죽으면 된다. 그리고 자꾸 운다. 그래서 장례마치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왜 그렇게 우나? 나 죽으면 울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죽으면 눈물 안 날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나 죽으면 장례 치르고 시집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씩 웃더니만 지금 죽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을 내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나에게 제자가 나타난다. 지금 장목사님 가는 곳에 제자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나는 교회 가면 아무 말 안들린다. 내 귀가, 내 눈이 세례를 받는지 교인들 잘못하는게 안 보인다.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란다. 오직의 망대, 유일성의 망대이다. 가짜로 믿지 말라.

어떤 부부가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다. 거기서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부인이 황당했다. 정부가 말하기를 여기서 시신을 묻으면 50달러면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5천 달러를 내야 한다. 우리같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부인이 굳이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누가 여기서 사람이 살아났는데, 혹시 신랑이 살아날까봐서. 이것은 안 믿는 것이다. 진짜 믿어야 한다. 진짜 믿는데 불안한가? 진짜 믿는데 잠이 안오고 우울한가? 왜 그런가? 불안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 죽는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오직의 망대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유일성의 망대이다. 목사 직분이 살리나? 장로 직분이 살리나? 아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예수 밖에 없다. 예수 붙잡기 바란다.

결론이다. 재창조의 망대이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표가 보인다. 무슨 시간표인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날이 보인다. 뭐가 보이냐? 때가 보인다. 그 때에, 이 날에, 날마다, 이것이 보인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응답이 보이는 것이다. 시간표이다. 전도가 보인다. 시간표이다.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시간표. 제자가 보인다. 현상이 보인다. 이것이 시간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으면 그냥 쪽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산다. 두 번째 보이는 것은 이정표이다. 차타고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다. 그거보고 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가면서 네비게이션 보고 간다. 이것이 이정표이다. 우리가 재창조의 망대가 뭐냐면 시간표도 보이고, 이정표가 보인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다. 부러운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교인들 보고 말하기를 나는 인생 성공했다. 왜냐면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회 성공했다. 왜냐? 내가 여러분들 보고 설교하니까. 나같이 모자라고 시골촌 사람이 임마누엘남가주교회에서 설교하면 된거지, 가문의 영광이고, 이것이 성공이다. 무슨 이정표인가?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마게도냐, 아시아, 저 로마까지. 어려운가? 안어렵다. 그리고 목표가 바뀌었다. 그 목표가 딱 집중하는 것이다. 내년엔 류목사님이 다락방 방향을 세가지로 말씀하셨다. 제 1,2,3RUTC의 응답, 내년은 영원, 첫 번째는 치유, 서밋, 237, 두 번째는 세가지 뜰, 세 번째는 금토일시대, 우리의 목표가 뭐가?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무속 무너뜨리는 것이다. 렘넌트 세워 세계 복음화 해야 한다. 남가주임마누엘교회에서 주지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 우리의 자녀중에 대통령 나올 것이다. 나는 그거 보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대통령 나와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살고 나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하나되어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하나가 뭐가? 목사님 기도제목과 방향이 내 기도제목이 되면 된다.

나는 류목사님에게 전화나 보고, 카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똑같이 쓰는 맨트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저의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어르신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장현태 목사님이다. 그래야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끝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중 한분이 제게 전화했다. 나는 조금 충격받았다. 목사님은 대통령보다 소중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했다.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 전도운동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제게 전화하세요. 아직 전화 안했다. 나중에 큰거 하려고. 청년중에 하나가 전화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통령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혹시 목사님이 돈 필요하면 제게 전화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내가 돈 더 많은데? 전화 안했다.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고 장목사님에게 전화하라. 그 말은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돈 준다는 말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교회에 걸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잘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렘넌트, 미주복음화에 생명 걸었다. 나는 류광수 목사님과 세계 복음화에 걸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와 장목사님에게 걸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망대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면 되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무너지면 되겠는가? 매일 필요한거, 없는거 언제 회복하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로마서 16장의 제자의 인생이다. 인생 망대, 뭐가 인생 망대인가? 오직의 망대, 유일성의 망대, 재창조의 망대.

가는 곳마다 이 간증하고 마친다. 참새가 100마리 앉아있다. 포수가 죽이려고 총을 쏘니까 참새들이 회의했다. 우리가 이리다가 다 죽겠다. 대출 받아서 방탄 조끼를 구매했다. 포수가 총을 쏘니 총알이 튕겨나는 것이다. 참새들이 좋아서 어개 동무하고 '야야' 노래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죽었다. 한 마리만 다른 동작했다. 죽을래, 살래? 살아나시기를 기도합니다.